



Press Release
Ver. 3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사무국

커뮤니케이션 팀장
심아빈
abs@mediacityseoul.kr
02.2124.8979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
김혜진
jin@mediacityseoul.kr
02.2124.8988

서울시립미술관

SeMA 비엔날레 담당 큐레이터
유민경
minkyungyoo@seoul.go.kr
02.2124.8973

서울시립미술관 홍보 큐레이터
변지혜
bsjihye@seoul.go.kr
02.2124.8928

웹사이트 www.mediacityseoul.kr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 Internet Explore에서만 열람 가능)
<http://webdisk.esseoul.go.kr/ohd/pm/home/login.php>
Guest 로그인 → ID: bsjihye PW: sema2013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귀신 간첩 할머니





순서

기본정보	1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소개	2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3	전시제목 예술감독 아이덴티티 포스터 오디오가이드 트레일러 프로젝트 개막 공연 웹사이트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
전시	4	최종 참여작가 명단 전시 주요작품
극장 상영	5	상영작 목록 상영작 주요작품
프로그램	6	상영 및 강연 컨퍼런스
관람 안내	7	관람시간 및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8	



1. 기본정보

전시명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귀신 간첩 할머니 SeMA Biennale <i>Mediacity</i> Seoul 2014: Ghosts, Spies, and Grandmothers
기간	2014년 9월 2일(화)–11월 23일(일)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SeMA), 한국영상자료원(KOFA)
관람료	무료
개막일시	2014년 9월 1일(월)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 기자간담회 및 전시투어

[2014년 9월 1일\(월\) 오전 11시 30분 서울시립미술관 지하 1층 세마홀](#) (점심 제공)

개막식 **9월 1일 (월)**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로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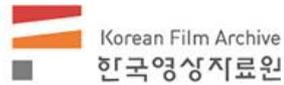
- 14:00 개막공연 <서울새남굿> 이상순 만신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 16:00 개막식
- 17:00 퍼포먼스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정은영
- 18:00 작가와의 대화 | 자크라왈 닐탐롱 (Jakrawal NILTHAMRONG)
- 19:00 작가와의 대화 | 에릭 보들레르 (Eric Baudelaire)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협력 한국영상자료원



협찬 효성, 삼성전자



후원 하나금융그룹, 국제갤러리, 김수남기념사업회, 스웨덴에솔지원금위원회, 주한프랑스문화원, 주한영국문화원, 주한독일문화원, 서호주정부문화부, 네이버, CJ E&M





2.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소개

<미디어시티서울>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주최하는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이다. 미디어 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고 서울시립미술관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 행사는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이라는 명칭으로 개막하여 2년마다 열려왔다. 그 동안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되었던 본 행사는 2013년부터 미술관 직영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올해로 제8회를 맞으며 14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미디어시티서울>은 동시대 예술을 중심으로 과학, 인문학, 테크놀로지의 교류와 통섭을 기반으로 제작한 미디어 작품을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은 미디어아트의 다양성을 소개하고 전문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회 다른 예술감독을 초빙하여 왔다. 올해는 예술가이자 영화 감독인 박찬경이 예술감독을 맡았고 '귀신 간첩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아시아'를 주제화하고 있다. 그 동안 51개국 452팀 이상의 작가들이 참여한데 이어 이번에는 17개국 42명(팀)의 국내외 작가들이 전시에 참여하여 미디어아트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미디어시티서울>은 본격적인 탈장르 융복합 예술 축제이자 대형 국제현대미술 행사로서 지역과 세계, 전통과 현대, 정통과 대안의 양면가치를 추구하는 서울시립미술관의 '포스트뮤지엄' 비전과 궤를 함께 한다.



3.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전시제목

귀신 간첩 할머니

Ghosts, Spies, and Grandmothers

이번 <미디어시티서울> 2014는 ‘아시아’를 화두로 삼고 있다. 아시아는 강렬한 식민과 냉전의 경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급변을 공유해 왔지만, 이를 본격적인 전시의 주제로 삼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이번 전시는 ‘귀신, 간첩, 할머니’라는 키워드를 통해, 현대 아시아를 차분히 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귀신은 아시아의 잊혀진 역사와 전통을, 간첩은 냉전의 기억을, 할머니는 ‘여성과 시간’을 비유한다. 그러나 출품작은 이러한 주제를 훌쩍 넘어서기도 하고 비껴가기도 하는 풍부한 가능성의 상태로 관객 앞에 놓여 있다. ‘귀신 간첩 할머니’는 전시로 진입하는 세 개의 통로이다.

‘귀신’은 역사의 서술에서 누락된 고독한 유령을 불러와 그들의 한 맺힌 말을 경청한다는 뜻으로 쓰고자 한다. 유령의 호출을 통해, 굴곡이 심했던 아시아를 중심으로 근현대사를 되돌아볼 것이다. 귀신은 또 ‘전통’과도 결부되어있다. 불교, 유교, 무속, 도교, 힌두교의 발원지이자 그 종교적 영향이 여전히 깊은 아시아에서, 현대 미술가들이 그 정신문화의 전통을 어떻게 새롭게 발견, 발명하고 있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는 미디어와 미디어움(영매)의 재결합을 통해 현대 과학이 쫓아낸 귀신들이 미디어를 통해 되돌아오기를 희망한다.

‘간첩’은 아시아에서 식민과 냉전의 경험이 각별히 심각했다는 점에 주목하기 위한 키워드이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가 함께 겪은 거대한 폭력은, 전쟁은 물론 사회의 극심한 상호 불신을 낳았고, 이는 여전히 이 지역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간첩’은 금기, 망명, 은행 전산망 해킹, 영화의 흥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른다. 또한 코드 해석, 정보, 통신을 다루는 다양한 미디어 작가들의 작업 방법이, 어떻게 ‘간첩’의 활동과 유사해 보이면서도, 그 가치를 완전히 역전시키는지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할머니’는 ‘귀신과 간첩의 시대’를 견디며 살아온 증인이다. 최근 위안부 할머니를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갈등은, 식민주의와 전쟁 피해의 핵심에 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다른 한편, 한국 전통문화에서 ‘옛 할머니’는 자손을 위해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아마도 ‘할머니’는 권력에 무력한 존재이지만, ‘옛 할머니’가 표상하는 인내와 연민은 바로 그 권력을 윤리적으로 능가하는 능동적인 가치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속의 스파이는 매력적이지만, ‘간첩’은 무섭다. 신(神)은 받아들여야 하나 귀(鬼)는 멀리해야 한다. 할머니는 공경해야 마땅한 존재지만, 동시에 대대적인 젊음의 찬양 밖으로 추방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모두 가끔 눈에 띄기도 하지만, 대체로 쉽게 보이지 않거나, 보고 싶지 않거나, 보면 안 된다. 그들/그녀들은 침묵의 기술자이자, 고급 정보의 소유자이다. 그들은 역설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흔히, 한반도의 비무장지대가 진기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는 기묘한 역설로부터, 어떤 변화의 희망을 엿보게 된다고 말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디어시티서울> 2014는 귀신, 간첩, 할머니가 쓰는 주문, 암호, 방언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공동체의 희망을 키우려는 집단지성의 현장이다.

<미디어시티서울> 2014 예술감독 박찬경



예술감독

박찬경 Park Chan-k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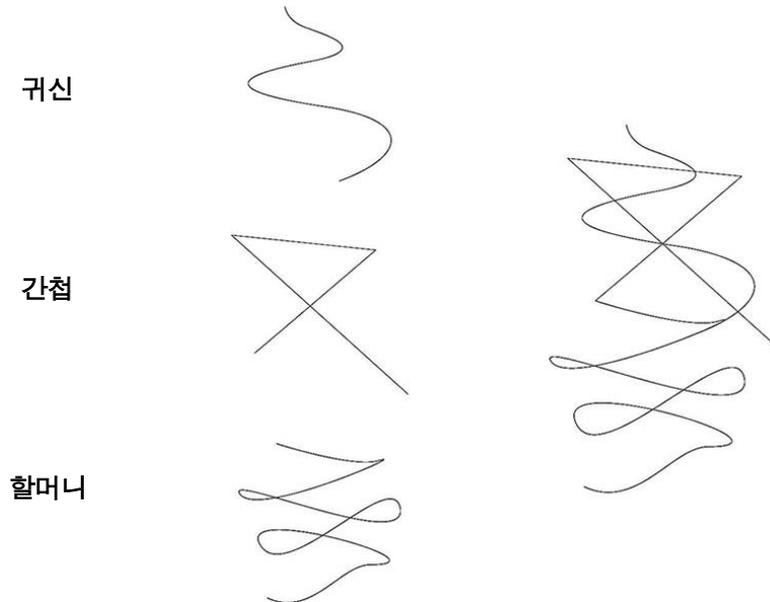
박찬경(1965)은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영화감독이다. 냉전, 한국의 전통 종교문화, 역사의 재구성 등을 주제로 다뤄왔으며 주요 영상 작업으로는 <신도안> (2008),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에> (2010), <파란만장> (2010, 박찬욱 공동감독), <만신> (2013) 등이 있다.

서울 아틀리에 에르메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레드캣 (REDCAT), 독일 슈투트가르트 솔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Akademie Schloss Solitude), 리움 삼성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비엔날레 등 세계 전역에서 다수의 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

최근 제2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대상 (2014)을 수상하였고, 제61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단편영화부문 황금곰상 (2011),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장편경쟁부문 대상 (2011), 에르메스코리아 미술상 (2004) 등을 수상했다.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는 '귀신', '간첩', '할머니' 각각의 흔적이나 존재하는 방식, 혹은 태도의 형태에서 실마리를 얻어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고 이를 다시 조합한 것이다. 개별적으로 귀신은 그것이 출현하는 모습/움직임을, 간첩은 정치권력을 의미하는 꺾임을, 할머니는 시간의 누적과 주름을 상징한다.

전시의 주제로서 삼자의 존재양식이 합쳐져 형상화되었을 때 우리는 그로부터 기원의 원형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고, 매듭처럼 묶여있던 것이 울음이 풀리는 것과 같은 형태는 현대의 부적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시기간 동안 이 아이덴티티는 이미지를 품는 플랫폼으로, 또는 작품을 매개하는 지시적 기호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될 것이다.

디자인: 정진열 (그래픽 디자이너,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조교수)

국민대, 예일대 대학원에서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했으며 서울 플랫폼 2009, 광주비엔날레 (2010), 백남준아트센터, 국립극단 등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포스터



이번 <미디어시티서울> 2014 포스터는 아이덴티티 로고를 부각시킨 것과 주제어 귀신 간첩 할머니 를 드러낸 포스터, 총 2종을 선보인다.



오디오가이드

배우 박해일 • 최희서

이번 <미디어시티서울> 2014에서는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국영문 오디오가이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오디오가이드 제작을 위해 특별히 배우 박해일과 최희서가 목소리 재능기부에 동참하였고, 이를 통해 좀 더 친숙하게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국문 오디오가이드



배우 박해일

배우 박해일은 최근 개봉한 영화 <경주>(2014)를 비롯하여 <고령화 가족>(2013), <은교>(2012), <최종병기 활>(2011), <이끼>(2010), <디 엔드>(2009), <모던보이>(2008), <극락도 살인사건>(2007), <괴물>(2007) 등 다수의 작품들에 주연으로 출연하며 대중의 큰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다. 제48회 대중상 영화제 남우주연상, 제32회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 제36회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남자신인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영문 오디오가이드



배우 최희서

배우 최희서는 2009년 영화 <킹콩을 들다>로 데뷔하여 영화와 드라마, 연극을 넘나들며 다채로운 연기 활동을 하고 있다.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최희서는 필리핀 며느리의 독특한 영어로 눈도장을 찍었던 MBC 드라마 <오늘만 같아라>(2011-2012)에서부터 올해 촬영을 마친 영화 <사랑이 이긴다>의 외교 교사 역할을 통해 그녀의 언어 능력으로 폭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펼치고 있다. 언론홍보영상학 전공인 최희서는 연기 이외에도 연출, 시나리오 집필 등에 큰 관심을 갖고 2010년부터 함께 한 영화팀과 5편의 단편 영화를 제작했다. 2012년에는 직접 연출, 주연을 맡은 단편 <난자완스>가 토론토 한국영화제에 입상한 바 있다.



트레일러 프로젝트

장영혜중공업 YOUNG-HAE CHANG HEAVY INDUSTRIES



의미는 광견처럼
미칠 듯 당신을
추격하죠.

(작) 독도는 우리 땅일까? *IS DOKDO OUR LAND?*
2014, Original text and music soundtrack, HD QuickTime movie, 15 sec
Commissioned by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2014, 오리지널 텍스트와 사운드, HD 퀵타임 무비, 15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신작

(우) 당신, 무의미와 외로움만이 존재하는 곳에 의미를 부여하기
MAKING SENSE WHEN THERE'S YOU, NONSENSE, AND LONELINESS
2014, Original text and music soundtrack, HD QuickTime movie, 90 sec
Commissioned by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2014, 오리지널 텍스트와 사운드, HD 퀵타임 무비, 90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신작

이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의 트레일러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그룹 장영혜 중공업이 제작했다. 두 개의 버전—15초(*IS DOKDO OUR LAND?*)와 90초(*MAKING SENSE WHEN THERE'S YOU, NONSENSE, AND LONELINESS*)—로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영혜중공업은 그들이 작곡한 음악에 맞춘 특징적 텍스트 애니메이션으로 20여 개의 언어로 된 작업을 하며 주요 미술관에서 작품을 선보여왔다. 여러 미술관 중 런던의 테이트미술관, 파리의 퐁피두센터, 뉴욕의 휘트니미술관과 뉴뮤지움 등이 있다. 장영혜(한국)와 막 보쥬(미국)는 장영혜중공업의 주역으로 2012-2013년 록펠러 파운데이션 벨라지오센터의 크리에이티브 아트 펠로우로 선정되었다.

※ 유튜브 15초 티저 (한국어) <http://youtu.be/1vGRDr89vXQ> (영어) <http://youtu.be/UalO2hKa-4>

※ 장영혜중공업 www.yhchang.com



개막 공연 *9월 1일 (월)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서울새남굿



서울새남굿(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1996년 지정)은 서울 무속의 죽음 의례를 대표하는 가장 큰 규모로 진오기굿의 전통에 근거한다. 불교적 요소와 궁궐문화의 요소가 합쳐지면서 생겼고 의례가 화려하다.

서울새남굿은 무속의 기본적 속성인 조상 신앙에 의존하는 동시에, 조상으로 새롭게 천도되어야 하는 죽은 사람의 넋을 기원한다. 특징으로는 의례에 여러 가지 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복을 여러 겹 껴입어 복수신에 대한 관념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신복마다 일정한 신격을 의미하며 이를 껴입음으로써 신격 상호간의 인접성을 나타낸다. 이 밖에 서울새남굿의 예술성은 노랫가락, 굿거리, 타령, 당악 등의 장단과 함께 어우러진 우아하고 단정한 몸짓(춤)에 있다.

이번 개막 공연에서의 굿은 여러 가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전시의 시작을 축원하고 과거 재판소와 대법원으로 사용되었던 현 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의 역사 속 애환을 씻는데 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등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여러 불운한 사고들로 인해 안타깝게 잃은 영혼들을 천도하는 마음으로 치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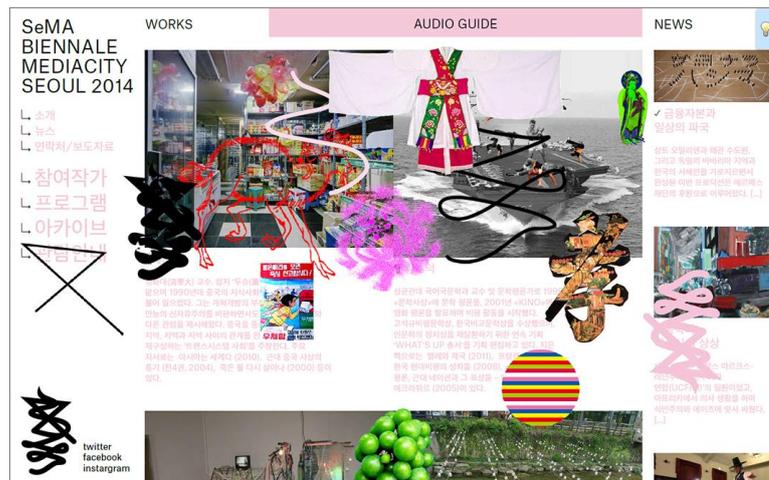
이상순 만신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1950년 서울 출신으로 15세에 신이 내려 50년 동안 신을 모시며 살고 있다. 2005년 7월, 중요무형문화재 서울새남굿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저서로는 <서울새남굿 신가집>이 있고, 음반으로는 <서울의 옛 소리>, <황제풀이>, <바리공주>가 있다.



웹사이트

www.mediacityseoul.kr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의 웹사이트는 귀신 간첩 할머니 라는 주제 아래 독자적 체계를 갖춘 또 다른 전시 ‘장소’이다.

전시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 도록, 오디오가이드, 교육자료, 포럼자료 등 비엔날레 전과정에서 도출되는 풍부한 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이는 관람자의 지적 호기심과 관심을 온라인 상에서 충족하게끔 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웹사이트가 새로운 담론과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미디어시티서울> 201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종전 전시장에 가서 들을 수 있었던 오디오가이드를 직접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특별히 이번 오디오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배우 박해일과 최희서의 목소리로 친근한 설명을 들으며 전시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웹디자이너: 홍은주, 김형재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인 듀오. 2007년부터 <가짜잡지>를 함께 만들어 발행하고 있다. 2009년 <다음 단계>, 2010년 <GZFM: 90.0 91.3, 92.5, 94.2>, 2011년 <아름다운 책 2010>, 2014년 <세 도시 이야기> 등의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했다. 2011년부터 비정기 문화잡지 <DOMINO>에 참여하고 있다.



SeMA -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

서울시립미술관은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개최에 맞춰 하나금융그룹과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를 제정한다.

올해 신설된 수상 제도를 통해 참여 작가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상금 5천만원을 수여한다.

- ※ 일 시 2014년 10월 30일(목)
- ※ 장 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 ※ 주 관 서울시립미술관
- ※ 주 최 서울시립미술관, 하나금융그룹
- ※ 대 상 SeMA 비엔날레 출품작가



4. 전시 *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과 한국영상자료원 내 한국영화박물관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최종 참여작가 명단

17개국 42명(팀)

* 순서: 영문명 성 기준

Name	이름	국적	출생/결성년도
1 Bae Young-whan	배영환	한국	1969
2 Eric Baudelaire	에릭 보들레르	프랑스	1973
3 CHE Onejoon	최원준	한국	1979
4 Choi Gene-uk	최진욱	한국	1956
5 Choi Sunghun + Park Sunmin	최승훈+박선민	한국	1970, 1971
6 Choi Min Hwa	최민화	한국	1954
7 Sang-il Choi, Jiyeon Kim	최상일, 김지연	한국	2014 결성
8 CHUNG Seoyoung	정서영	한국	1964
9 Nina Fischer & Maroan el Sani	니나 피셔 & 마로안 엘 사니	독일	1993 결성
10 Nilbar Güreş	닐바 귀레쉬	터키	1977
11 Ho Sin Tung	호신통	홍콩	1986
12 Haejun JO & KyeongSoo LEE	조해준, 이경수	한국	2005 결성
13 Jesse Jones	제시 존스	아일랜드	1978
14 Joo Jae-hwan	주재환	한국	1941
15 siren eun young jung	정은영	한국	1974
16 Mikhail Karikis	미카일 카리키스	그리스/영국	1975
17 Kim Soo-nam	김수남	한국	1947
18 Kim In-whoe	김인회	한국	1938
19 Dinh Q. Lê	딘 큐 레	베트남	1968
20 Jawshing Arthur Liou	자오싱 아서 리우	대만/미국	1968



21	Joanna Lombard	요안나 롬바르드	알제리	1972
22	Basim Magdy	바심 막디	이집트	1977
23	Pilar Mata Dupont	필라 마타 듀폰트	호주	1981
24	Min Joung-Ki	민정기	한국	1949
25	Naito Masatoshi	나이토 마사토시	일본	1938
26	Jakrawal NILTHAMRONG	자크라왈 닐탐롱	태국	1977
27	The Propeller Group	프로펠러 그룹	베트남	2006 결성
28	Rho Jae Oon	노재운	한국	1971
29	Lina Selander	리나 셀란더	스웨덴	1973
30	Sean Snyder	션 스나이더	미국	1972
31	SU Yu-Hsien	쑤 위시엔	대만	1982
32	Tamura Yuichiro	타무라 유이치로	일본	1977
33	Truong Cong Tung	쯔엉 콩 퉁	베트남	1986
34	Otty Widasari	오티 위다사리	인도네시아	1973
35	Haegue Yang	양혜규	한국	1971
36	YAO Jui-chung	야오 루이중	대만	1969
37	Yoneda Tomoko	요네다 토모코	일본	1965
38	YOUNG-HAE CHANG HEAVY INDUSTRIES	장영해중공업	한국, 미국	1999 결성
39	Mahardika Yudha	마할디카 유다	인도네시아	1981
40	Zero Dimension / Kato Yoshihiro	제로지겐/ 카토 요시히로	일본	1963 결성
41	Unknown (Honchunjeondo: Complete Map of the Celestial Sphere, Replica)	작자미상 (혼천전도, 복제)	한국	19 세기
42	Unknown (Yojijyundo: Taoist on Their Way to Xi Wang Mu's Banquet)	작자미상 (요지연도)	한국	조선 후기



전시 주요작품

최원준 CHE Onejoon
(1979, 한국)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 *Mansudae Master Class*

2014, 3 channel HD video, archive installation

Archive installation: Commissioned by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2014, 3채널 HD 비디오, 아카이브 설치

아카이브 설치: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신작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는 북한 지도자의 동상과 초상화 등을 제작하며 국가의 이미지를 선전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맡고 있다. 특히 만수대 해외개발사는, 1974년 에티오피아의 혁명승리탑(Tiglachin Monument)의 건립을 시작으로, 마다가스카르, 토고, 기니, 에디오피아 등에 공공건물과 기념비 등을 무상으로 세워주었다. 아프리카에 있는 북한의 건축은 주로 아프리카 나라들의 역사와 관련된 기념비지만, 북한에 갈 수 없는 분단 상황에서는 북한의 대형기념물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색채보다 북한의 '주체예술' 형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아프리카의 기념비와 건축물들은 아프리카를 통해 표상되는 북한이라고 볼 수 있다. 최원준 작가는 이 전과정을 담은 비디오와 아카이브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황금사자상을 받은 2014년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작품의 일부가 공개된 바 있다.

서울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최원준은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와 남북한의 관계에 집중하며 한반도의 냉전을 새로운 지정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의 아뜰리에 에르메스(2011), 플라토 미술관 (2011), 파리의 팔레 드 도쿄(2012), 케브랑리 박물관(2013),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한국관(2014)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2010년 일우사진상을 수상하였다.



정서영 CHUNG Seoyoung
(1964, 한국)



달에서 달까지 *From Moon to Moon*

2014, Inkjet print, 200x300cm

Commissioned by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2014, 잉크젯 프린트, 200x300cm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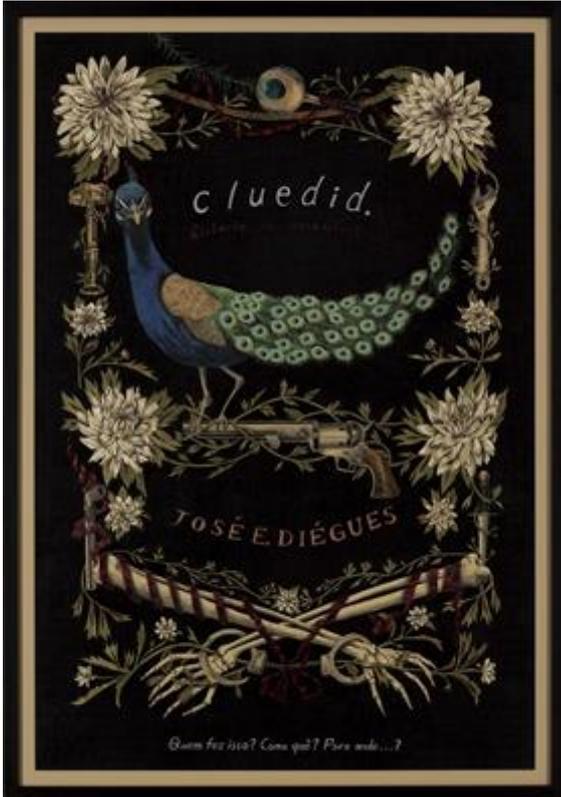
정서영 작가는 다음과 같은 시적인 언어로 작품을 묘사한다.

“무엇으로 요약할 수 없는 모임. 사람과 달 덩어리 비슷한 것이 모였다고 비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눈앞에 보인다고 다 분류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현실은 늘 문제라서, 사실은 분류가 가능하지만 보통은 인지할 수 없는 곳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서영은 사물과 그것을 둘러싼 공간에 대해 사유하기 위해 조형성과 형식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다. 베니스 비엔날레(2003), 광주비엔날레(2002, 2008) 등의 국제 전시에 참여한바 있으며, 아트선재센터, 일민미술관, 아틀리에 에르메스, 독일 포르티쿠스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호신평 Ho Sin Tung
(1986, 홍콩)



<홍콩 인터-비보스 영화제> 중에서. 클루디드

From Hong Kong Inter-vivos Film Festival. Cluedid

2012, Ink and color pencil on paper, 101.5x68.5 cm

Courtesy the artist and M+,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Authority (Hong Kong)

2012, 종이에 잉크와 색연필, 101.5x68.5 cm

Courtesy the artist and M+,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Authority (Hong Kong)

작품 <홍콩 인터-비보스 영화제 Hong Kong Inter-vivos Film Festival>는 호신평이 만든 가상의 영화 28편을 전시의 형태로 보여준다. 가상의 영화 스틸, 영화 포스터, 가짜 영화 시놉시스로 구성되고, 호신평이 촬영한 영화 예고편이 상영된다. 이 가상의 영화제는 실제로 2012년 홍콩국제영화제와 같은 기간에 열렸다.

<마스터피스>, <클래식 레스토리에트>, <어드밴스가드>, <모큐멘터리>, <체코공화국 공개되다> 등 28편의 가상의 영화를 통해, 작가는 고전의 권위에 도전하고 문화권력을 보여주며 영화제라는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 자신의 정신 세계를 돌아본다.

각각의 가상 영화들은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충족이나 완벽함의 거부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라틴어로 '인터-비보스'(inter-vivos)는 '삶의 사이에서'라는 말로 직역될 수 있다. 오직 살아있는 존재만이 영화제의 관객이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상상/가상의 세계 그리고 죽음의 세계에서만 가능하다고 작가는 말한다.

호신평은 홍콩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콩현대미술상 전시(2010, 2012), 팔레 드 도쿄(2012), 상하이 비엔날레(2012) 등에서 전시하였고, 2012년 홍콩현대미술상과 홍콩예술진흥상을 수상하였다.



From Hong Kong Inter-vivos Film Festival. You are the Sucker of My Eyes

2012, Pencil on paper, 19x34.5cm

Courtesy the artist and M+,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Authority (Hong Kong)

2012, 종이에 연필, 19x34.5cm

Courtesy the artist and M+,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Authority (Hong Kong)



정은영 siren eun young jung
(1974, 한국)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Le Nouveau Monde Amoureux*

2014, Performance, 45 min.

Commissioned and Produce by Asian Culture Complex-Asian Arts Theatre

Suppor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fice for the Hub City of Asian Culture and Mediacity Seoul 2014

2014, 퍼포먼스, 45분

기획 및 제작: 대한민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는 판소리를 관통하는 특유의 전통 미학에 기대고 있다. 공연은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춘향가>의 사설과 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만, 이 전형적인 낭만적 서사의 전개 속에 시종일관 당대의 계급의식을 뒤흔드는 부단한 투쟁이 담겨있음을 드러낸다. 원래 춘향가는 여성에게 강요된 '일부종사'의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이 공연은 귀신의 흐느낌에 가까운 애절한 자기고백을 통해 춘향이 쉼 새 없이 폭로하는 춘향의 딜레마와 분열증을 포착한다. 이 공연에 등장하는 재담꾼, 고수, 학자, 소리꾼, 여성국극배우가 각각 서사, 장단, 이면(의미), 창을 나누어 연출한다. 이렇게 판소리의 형식적 분화를 통해 얻어낸 각 인물은 스스로를 재창조하면서 새롭게 판을 짠다.

정은영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가는 1950년대에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고 서서히 사라져간 공연장르인 '여성국극'의 남역배우들을 추적하면서 성별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역학을 분석하고 비판한다.

“러닝머신”(2013), “기울어진 각운들”(2013), “동두천: 기억을 위한 보행, 상상을 위한 보행”(2008) 등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2013년 에르메스코리아 미술상을 수상했다.



미카일 카리키스 Mikhail Karikis
(그리스/영국, 1975)

해녀 *SeaWomen*

2012, HD video, stereo sound, 16 min.
Courtesy the artist

2012, HD 비디오, 스테레오 사운드, 16분
Courtesy the artist



<해녀>는 제주도의 바다 노동자, 노년 여성의 일과 독특한 소리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녀의 대부분은 60세에서 80세에 이르는 여성들로, 대를 이어 전수되어 온 '숨비소리'라는 전통적인 숨쉬기 기술을 여덟 살부터 익힌다. 때로는 경고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을 나타내기도 하고, 종종 새나 돌고래 울음소리와 혼동되기도 하는 '숨비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우며 해녀들의 위험한 일상 속에서 삶과 죽음 사이의 지평을 나타낸다.

미카일 카리키스의 시청각 설치는 몰입형 경험을 만들어낸다. 작품의 소리와 이미지는 바다 일을 하는 노년 여성의 하루, 집단 활동, 그리고 그것이 공동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표현한다. 진주잡이 작업 중에 갑자기 몰아치는 광폭풍 소리는 해녀들이 하는 작업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그리고는 해녀의 숙소에서 녹음한 생동감 넘치는 전통 노동요가 이어진다.

조각적 물질로서의 인간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미카일 카리키스는 커뮤니티, 노동의 정치성, 차이에 대한 쟁점 등을 탐구한다. 미카일 카리키스의 작품은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미술기관과 시드니 비엔날레(2014),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2013), 마니페스타 9(2012), 베니스 비엔날레(2011) 등에 선보여왔다.



자오싱 아서 리우 Jawshing Arthur Liou
(1968, 대만/미국)

코라 Kora

2011~2012, 3K video, sound composition by Aron Travers and Melody Eötvös, 14 min., Courtesy Chiwen Gallery (Taipei)

3K 비디오, 아론 트래버스와 멜로디 에퇴베스가 작곡한 사운드트랙, 14분, Courtesy Chiwen Gallery (Taipei)



자오싱 아서 리우는 2,300킬로미터에 이르는 대장정을 떠났다.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 출발하여 티베트 고원을 지나 궁극적으로는 에베레스트 산과 카일라스 산에 이르는 여정이다. 이 여행 중에는 나홀 간의 코라(kora)가 포함되어 있는데, 코라는 카일라스 산 5,000~6,000미터 사이 주변을 순행하는 과정이다. 이 작품은 순례자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독특한 산의 풍경과 자연에 대한 경외, 성스러운 영적 공간을 보여준다.

외로운 산행 속에 서서히 펼쳐지는 방대한 전자 음악과 현악기 소리가 점차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영상이 자연 경관의 대규모 심포니를 드러내는 한편, 티베트 불교 전통에 따른 부드러운 기도의 종소리가 잠들어 있는 정신을 일깨운다. 때로는 자연의 침묵이 강박적인 긴장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적인 교감으로 다가와 깊은 영적 법열(法悅) 상태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바위 사이에서 휘날리는 불자의 깃발은 모든 이들의 복을 바라는 티베트 불자의 기원을 세계 각지로 흩어놓는다.

자오싱 아서 리우는 대만 출신으로 현재 미국 블루밍턴에 거주하며 작가 활동과 함께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디지털 아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사진, 비디오, 전자 이미지를 활용하는 자오싱 아서 리우의 비디오 설치 작업은 정신적이고 초현실적인 공간을 묘사한다. 대만시립미술관(2014), 도쿄도사진미술관(2014), 대만국립미술관(2011) 등에서 열린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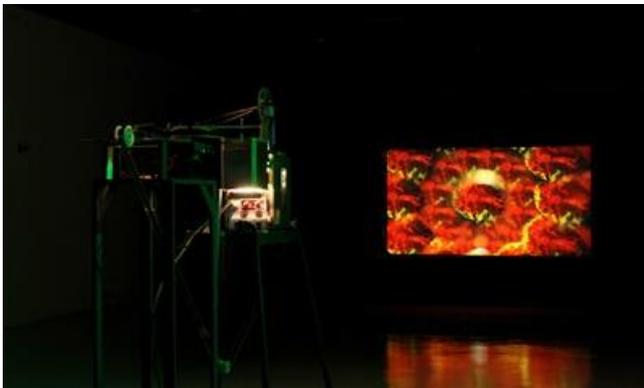


자크라왈 닐탐롱 Jakrawal NILTHAMRONG
(1977, 태국)

인트랜짓 *INTRANSIT*

2013, 35mm film transferred to 16mm film, 5 min. (loop)
Courtesy the artist

2013, 16mm 필름 (원본 35 mm), 5분(반복재생)
Courtesy the artist



<인트랜짓>은 세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진다. 공간에 떠 있는 행성, 기묘한 풍경이 있는 행성의 표면, 마치 다른 우주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액상 물질의 클로즈업 장면이 그것이다. 이 필름은 영화 감독들이 우주 공간의 생명체를 묘사하기 위해 '유기적 효과'를 실험했던 1960년대 공상과학 영화 테크닉, 그리고 영상매체를 개념미술의 형태로 탐구했던 1970년대 미국 실험영화에 대한 오마주이다.

영화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동영상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성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셀룰로이드 필름에서 마그네틱 테이프,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파일의 형태이다. 작가는 35mm 필름으로 영화를 만들고, 1960년대 공상과학 영화의 특수 촬영 기법을 탐구하고 실험하면서 유기적 물질을 사용하거나 모델을 제작한다.

태국 출신의 영화감독 자크라왈 닐탐롱은 다큐멘터리, 장·단편 영화, 비디오 인스톨레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상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언리얼 포레스트>(2010), <스톤 클라우드>(2014) 등이 있다. 2007년 암스테르담의 라익스아카데미 레지던시에 참여했으며, 로테르담 국제 필름 페스티벌(2010), 베를린영화제(2014)에 초대된 바 있다.



타무라 유이치로 Tamura Yuichiro
(1977, 일본)

세와료리스즈키보초 (世話料理鱸包丁, *Suzuki Knife, Social Cooking*)

2014, Mixed media installation

Commissioned by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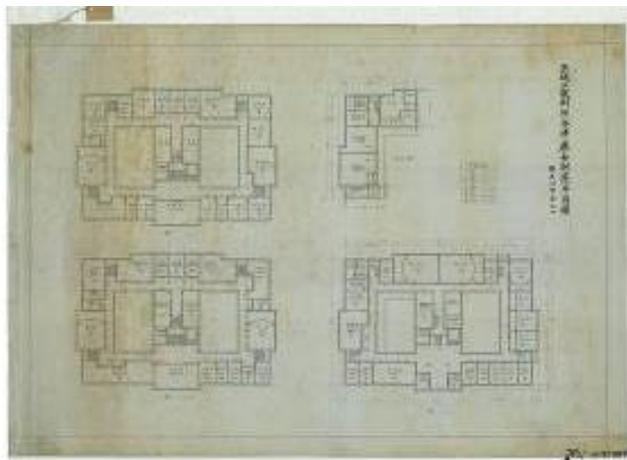
2014, 혼합매체 설치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신작



2014, photo by Tamura Yuichiro
2014, 타무라 유이치로 촬영

이 작품은 하나의 한일 관계에 관한 의미심장한 퍼즐이다. 조선통신사는 일본의 에도시대에 총 12번 행해졌다. 그 중 11회 째인 1764년, 조선 통신사 수행원인 최천종(崔天宗)이 살해당한다. 범인은 쓰시마 번의 하급무사이자 통역을 맡았던 스즈키 덴조임이 밝혀진다. 사용된 흉기에 관해서는 '일본제 식칼 15cm, 칸(関)의 대장장이 가네사다 제작'이라는 정보가 남아 있다. 이 사건은 당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곧바로 가부키의 공연 소재로 다루졌다. 그 중에서 가장 빨리 공연된 가부키 <세와료리스즈키보초>에서 스즈키('농어'라는 뜻)는 범인인 스즈키 덴조의 스즈키를 말하며, 보초는 흉기로 쓰였던 식칼을 지시한다. 타무라는 바로 그 칸시(関市)에서 지금도 옛날 방식으로 식칼을 만드는 한 늙은 대장장이 장인을 만나 농어를 손질할 수 있는 식칼 제작을 의뢰한다. 다른 한편, 현재 <미디어시티서울> 2014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은 원래 일제가 서울에 세운 고등재판소였다. 재판은 일본어로 '사보쿠'로 읽는데, 이는 물고기를 자르거나 손질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타무라 유이치로는 한국의 한 해안에서 농어를 낚아, 이를 옛 일본 식칼로 요리한다.



<경성삼재판소합병청사신축평면도>, 1926-27년 추정
(출처: 국가기록원)

타무라 유이치로는 동경예술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도쿄와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사진을 출발점으로 삼아 무빙 이미지의 가능성을 부단히 추구하면서 영상, 설치, 퍼포먼스와 같은 여타 매체를 넘나들어왔다. 도쿄도사진미술관(2014), 세토우치 비엔날레(2013), 도쿄도현대미술관(2012), 오버하우젠 국제 단편영화제(2011) 등의 미술기관과 영화제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쯔엉 쑹 똥 Truong Cong Tung
(1986, 베트남)



요술 정원 *Magical Garden*

2012-2014, Found photographs, reprinted on C-print,
30x40 cm (each), 8 pieces © Truong Cong Tung

2012-2014, 발견한 사진, C-프린트로 재인화한 사진 8점,
각 30x40cm, © Truong Cong Tung

쯔엉 쑹 똥은 고통과 운명,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베트남 사람의 믿음을 탐구한다. 그는 마치 인류학자처럼 롱안 지방에 있는 '요술 정원'(개인 소유이지만 일반에 공개된 정원으로 치유의 힘을 가진 장소로 알려짐)으로 찾아가 현장 연구를 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의 영적 믿음과 의식(儀式), 아직 과학적으로는 치유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요법을 목격한다. 이 연구에서 그는 믿음의 실체를 발견한다. 다시 말해 망상은 마치 꿈이 그런 것처럼,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된다. 쑹 똥은 성스러운 사물을 숭배하는 의례로 이러한 관심을 넓혀 간다. 반은 허구이고 반은 다큐멘터리로 구성된 그의 작품은 집단적 고난이나 개인적 고통에서 기인하는 여러 층위의 믿음을 담담히 보여준다.

쯔엉 쑹 똥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활동한다. 그는 영적인 문화, 구술의 역사, 민속, 주술과 악령 같은 신비하면서 미묘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디오, 설치, 회화, 발견된 오브제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그의 작품들은 개인적인 생각과 사회적 변화상, 인종, 종교,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을 반영한다.



양혜규 Haegue Yang
(1971, 한국)



소리 나는 춤 *Sonic Dances*, 2013

소리 나는 돌림 타원 *Sonic Rotating Ovals*, 2013

© Installation view of *Ovals and Circles*, Galerie Chantal Crousel, Paris, France, 2013
Photo: Florian Kleinefenn

양혜규는 서울시립미술관 각각 1층과 3층에 방울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소리 나는 조각(Sonic Sculptures)이라 명명된 최신작을 선보인다. 빛, 가시성, 투과성, 중력 등을 다루왔던 이전 설치작에 비해, 이번 작품에서는 움직임과 소리, 바람 등의 요소가 더해져 기계적인 근대 결정론을 보다 총체적으로 부정한다.

작품을 이루는 수많은 방울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섬세한 쇠소리를 내며 조각이 차지했던 물리적 공간을 청각적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새롭게 열어젖힌다. 방울이 동서고금에서 지녀온 깊은 의미에 힘입어 조각의 공간은 우리를 문명의 아주 긴 시간대에 대한 상상의 공간으로 옮겨 놓는다.

양혜규는 서울과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양혜규의 작업은 종종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들의 실체를 강조하면서도 자율적인 추상 언어로 귀결된다. 워커아트센터(2009), 모던아트옥스퍼드(2011), 하우스데어쿤스트(2012)와 같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베니스 비엔날레 (2009), 카셀 도쿠멘타(2012) 등에 참여했다.



요네다 토모코 Yoneda Tomoko
(1965, 일본)

<적운(積雲)> 연작 중에서. 히로시마 평화의 날
From the Series Cumulus. Hiroshima Peace Day

2011, Photographed on 6th August 2011
(The day the atomic bomb was dropped)

Chromogenic print, 65x83 cm, Courtesy the artist and ShugoArts

2011년 8월 6일 촬영(원자폭탄 투하된 날)

2011, 크로모제닉 프린트, 65x83cm, Courtesy the artist and ShugoArts



“유례없는 쓰나미의 후유증과 동일본 지진의 사후 충격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 나라는 다시 한 번 후쿠시마 다이이치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재앙으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머리 속에 아직도 떠오르는 일상적인 공포가 되었다. 연약한 인간들은 온갖 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해도 예측할 수 없었던 공포를 목격했고, 현상의 규모가 너무나 거대해서 개인은 저항할 힘을 상실했다. 이 비극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고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와 국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이 새로운 긴급 상황을 인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권위에 대한 복종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세계 초강국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 민주화의 과정을 애써 거쳐왔고, 과거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승인해왔다. 지금 이 곳 도쿄에 머무는 동안 나는 이러한 일들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내 마음 속에서 이 사건들은 인간 존재의 의미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고, 의구심에 대한 해답을 구하러 다니게 했다. 인간 존재가 욕망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고분자 바이오 소재 중에 그 소재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모든 것이 늘 비가시적이었다.” [요네다 토모코]

요네다 토모코는 런던에서 활동하는 사진가로 일상적인 장소와 동시대의 현실, 그리고 장소와 연관된 드라마틱한 기억 및 역사에 주목한다. 주요 전시로는 동경도사진미술관(2013), 서울 플랫폼 2009, 베니스 비엔날레(2007)가 있다.



5. 극장 상영

상영작 목록

- * 극장 상영은 협력(프로그램 공동주관) 기관인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이루어집니다.
- * 한국영상자료원 지하1층 시네마테크 KOFA에서 관람 가능하며, 예매 및 자세한 이용방법은 추후 상세히 공지될 예정입니다.
- * 상영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매 Medium / 9월 2일-5일

미디어와 미디움(영매)은 같은 어원을 갖는다. 이 섹션은 영상 기술로 주술을 담아내거나, 적어도 주술의 기억에 관해 말하는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제의, 신비, 환상, 공포 등은 현대의 과학기술이 몰아내려고 하지만, 언제나 문화의 기층으로부터 매혹적인 서사를 제공한다. 그것은 때로 기억하기 싫은 과거를 들춰내기도 하며, 현대가 정복하지 못하는 장소를 지시하기도 하고, 상상력의 가치를 극대화하기도 한다.

1	안드레아의 하늘 <i>Andrea's Sky</i>	나타샤 니직 Natacha Nisic	60', 프랑스, 2014
2	장르 서브 장르 <i>Genre Sub Genre</i>	요셉 양기 노엔 Yosep Anggi Noen	12', 인도네시아, 2013
3	4분간 숨을 참아라 <i>Hold your breath for four minutes</i> - <i>The Cemetery</i>	김상돈 Sangdon Kim	4', 한국, 2008
4	이어도 <i>leoh Island</i>	김기영 Kim Ki-young	110', 한국, 1977
5	매낙 <i>Mae Nak</i>	핌파카 토위라 Pimpaka Towira	33', 태국, 1995
6	지구 영매 <i>Medium Earth</i>	오톨리스 그룹 The Otolith Group	41', 영국, 2013
7	래디언트 <i>The Radiant</i>	오톨리스 그룹 The Otolith Group	65', 영국, 2012
8	사이의 풍경 <i>Scenes of Between</i>	조해준, 유희 Haejun JO, You Hee	28', 한국, 2013
9	정령 <i>Pea</i>	타무라 유이치로, 끄리사콘 톨툽타이 Tamura Yuichiro, Krissakorn Thinthupthai	9', 일본/태국, 2012
10	상흔의 여행 <i>Trip to the Wound</i>	에드윈 Edwin	7', 인도네시아, 2007



아시아 고딕 Asian Gothic / 9월 11일-17일

‘네오 고딕소설’은 흔히 서구 후기낭만주의 문학에서 환상, 외계, 트라우마, 불가사의, 공포, 송고 등을 다루며 산업사회와 과학기술에 대한 근대의 불안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괴담이나 공포영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 지역에서 위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네오 고딕’의 세계와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도, 유령이 등장하고 말하는 방식, 환상의 역사적인 연원, 과거와 현재의 관계, 외계 상상의 관습 등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아시아 고딕’은 사실 ‘아시아 고딕?’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다.

11	보헤미안 랍소디 프로젝트 <i>The Bohemian Rhapsody Project</i>	호 추 니엔 Ho Tzu Nyen	7', 싱가포르, 2007
12	지구 <i>Earth</i>	호 추 니엔 Ho Tzu Nyen	42', 싱가포르, 2009
13	아시아의 유령 <i>Ghost of Asia</i>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Apichatpong WEERASETHAKUL	9', 태국/프랑스, 2005
14	유령의 집 <i>Haunted Houses</i>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Apichatpong WEERASETHAKUL	60', 태국, 2001
15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i>The Man with Three Coffins</i>	이장호 Lee Jang-ho	104', 한국, 1987
16	과잉개발의 기억 <i>Memories of Over-Development</i>	키들랏 타히믹 Kidlat Tahimik	132', 필리핀, 1980-2014
17	셰익스피어 머스트 다이 <i>Shakespeare Must Die</i>	잉 케이 Ing K	172', 태국, 2012
18	천년호 <i>Thousand Years Old Fox</i>	신상옥 Shin Sang-ok	89', 한국, 1969
19	우타마: 역사의 모든 이름은 나 <i>Utama: Every Name in History is I</i>	호 추 니엔 Ho Tzu Nyen	23', 싱가포르, 2003
20	뱀파이어 <i>Vampire</i>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Apichatpong WEERASETHAKUL	19', 태국/프랑스, 2008

냉전극장 Cold War Theater / 10월 14일-19일

이제 냉전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지는 의문이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냉전의 영향은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냉전은 이데올로기 갈등에 기원을 둔 미·소 블록 사이의 대결로 인식되지만, 이제는 이념과의 관련성을 대부분 상실한 대신 정치문화와 기억의 경쟁으로 변하고 있다는 면에서 하나의 ‘극장’으로 비유될 수 있다.

21	731부대: 지옥의 두 버전 <i>731: Two Versions of Hell</i>	제임스 T. 흥 James T. Hong	27', 미국/중국, 2007
22	액트 오브 킬링 <i>The Act of Killing</i>	조슈아 오펜하이머 Joshua Oppenheimer	159', 덴마크/노르웨이/영국, 2012



23	사죄 <i>Apologies</i>	제임스 T. 홍 James T. Hong	56', 대만, 2012
24	경계도시2 <i>The Border City 2</i>	홍형숙 Hyung-sook Hong	104', 한국, 2009
25	지양춘건의 상처 - 전진과 후퇴 <i>Cutaways of Jiang Chun Gen - Forward and Back Again</i>	제임스 T. 홍 James T. Hong	10', 미국/중국/대만, 2012
26	최후의 증인 <i>The Last Witness</i>	이두용 Lee Doo-yong	158', 한국, 1980
27	짜코 <i>Mismatched Nose</i>	임권택 Im Kwon-taek	110', 한국, 1980
28	잃어버린 사진 <i>The Missing Picture</i>	리티 판 Rithy PANH	90', 캄보디아/프랑스, 2013
29	모란봉 <i>Moranbong, une aventure coréenne</i>	장 클로드 보나르도 Jean-Claude Bonnardot	90', 프랑스, 1958
30	피아골 <i>Piagol</i>	이강천 Lee Kang-cheon	106', 한국, 1955
31	특별수사본부 김수임의 일생 <i>Special investigation headquarter A life of Miss Kim Su-Im</i>	이원세 Lee Won-se	102', 한국, 1974

그녀의 시간 Her Time / 11월 4일-9일

이 섹션에 속한 영화들은 구술과 증언의 가치를 확인해준다. 주로 할머니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일말의 진실에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증언이 영화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되기까지 지나가버린, 보이지 않는 그 긴 시간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할머니들이 카메라 앞에 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들이 겪었던 것을 또 겪어야 했던 반면, 어떤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새로 태어나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32	낮은 목소리2 <i>Habitual Sadness 2</i>	변영주 Byun Young-joo	56', 한국, 1997
33	완벽하게 사라지는 법 <i>How to Disappear Completely</i>	라야 마틴 Raya Martin	80', 필리핀, 2013
34	밀양전 <i>Legend of Miryang1</i>	박배일 Park Bae-il	74', 한국, 2013
35	장마 <i>Rainy Season</i>	유현목 Yu Hyun-mok	114', 한국, 1979
36	거미의 땅 <i>Tour of Duty</i>	김동령, 박경태 KIM Dong-ryeong, Park Gyeong-tae	150', 한국, 2013



다큐멘터리 실험실 Documentary Lab / 11월 18일-23일

이 섹션은 대안적 비디오 제작이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최근 만들어진 작품을 선보인다. '인도네시아 비디오 아트 10년' 컬렉션과 하노이 닥랩에서 제작된 작품들은, 지역의 영상교육이나 공동체 활동과 긴밀하게 연결된 생생한 현장 활동의 소산이다. 이에 짝을 맞추어 최근 한국에서 제작된 실험적인 다큐멘터리 중에서 중요한 작품 네 편을 모아보았다.

37	인도네시아 비디오 아트 10년 <i>10 Years of Video Art in Indonesia</i>	OK. 비디오/루앙루파 OK. Video/ruangrupa	77', 인도네시아, 2001-2009
38	하노이 닥랩 작품 모음 <i>DOCLAB's Works</i>	닥랩 DOCLAB	78', 베트남, 2010-2013
39	난시청 <i>A blanket area</i>	이원우 Wonwoo Lee	9', 한국, 2008
40	전람회의 그림 <i>Pictures at an Exhibition</i>	황선숙 Hwang Sun Sook	22', 한국, 2013
41	죽은 개를 찾아서 <i>Searching for Dead Dogs</i>	김숙현 Sook Hyun Kim	31', 한국, 2010
42	재구성의 경로들 (유관순 프로젝트) <i>Unfinished Work</i>	조혜정 Hye Jeong Cho	31', 한국, 2011



상영작 주요작품

영매 Medium / 9월 2일-5일

나타샤 니직 Natacha Nisic



안드레아의 하늘 *Andrea's Sky*

프랑스 | 2014 | 60분 | 컬러 | 디지털 파일

독일 바바리아 지방에서 나고 자란 안드레아는 2007년 한국에서 내림굿을 받고 무녀가 된다. 개인적 삶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생사가 달랐다 할 정도로 중대한 이 상황에 대하여, 안드레아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안드레아의 이야기는 그녀가 있든 없든, 그녀가 갔던 곳, 촬영된 곳 마다 울림을 남긴다.

아시아 고딕 Asian Gothic / 9월 11일-17일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Apichatpong WEERASETHAKUL 단편 모음



아시아의 유령 *Ghost of Asia*

태국, 프랑스 | 2005 | 9분 | 컬러 | 디지털 파일

유령의 집 *Haunted Houses*

태국 | 2001 | 60분 | 컬러 | 디지털 파일

뱀파이어 *Vampire*

태국, 프랑스 | 2008 | 19분 | 컬러 | 디지털 파일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은 1970년 태국 방콕에서 태어났다. 1994년부터 필름과 비디오로 단편 작업을 해 왔으며, 2000년 완성한 첫 장편영화 <정오의 낮선 물체>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친애하는 당신>(2002), <열대병>(2004), <징후와 세기>(2006)로 우리 시대의 대표 작가가 되었으며, <영클 분미>(2010)로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장편과 함께 단편영화들, 다양한 설치와 전시 작업 또한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미디어시티서울> 2014는 그의 단편 작업들을 소개한다.



냉전극장 Cold War Theater / 10월 14일-19일

조슈아 오펜하이머 Joshua Oppenheimer



액트 오브 킬링 *The Act of Killing*

덴마크/노르웨이/영국 | 2012 | 159분 | 컬러 | HD

지금껏 우리가 본 영화들은 선과 악이 대치하는, 즉 착한 이들과 악당에 맞서 싸우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착한 이들과 악당은 동화어나 존재한다. 사실 역사의 모든 악행은 우리 같은 인간이 저지른 것이었다. <액트 오브 킬링>을 보며 천 여 명의 사람을 죽인 안와르에게서 당신의 모습을 찾아보길 바란다. 살인자를 동정한다고 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동정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짧은 순간이나마 안와르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당신은 세상은 선한 자와 악한 자로 이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악한 자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과거를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현실을 어떻게 창조해내는가? 우리는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이용해 우리의 가장 역겹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로부터 도망치는가?

장 클로드 보나르도 Jean-Claude Bonnardot



모란봉 *Moranbong, une aventure coréenne*

프랑스 | 1958 | 90분 | 흑백 | DigiBeta

해방이 왔으나 곧 분단된 한반도. 개성에서 사랑에 빠진 한 쌍의 젊은이가 한국전 와중에 헤어지고 다시 만난다는 줄거리를 지닌 이 영화를 연출한 이는 프랑스 배우 겸 감독 장 클로드 보나르도다. 1958년, 그는 영화감독 크리스 마커, 클로드 란츠만, 극작가 아르망 가티 등과 함께 북한에 초청된다. 보나르도와 가티는 여행 중 단편영화를 찍을 요량이었으나, 촬영 장비와 배우 등을 북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장편을 만들게 된다. 영화 속 한국전 묘사 등을 이유로 1959년 프랑스 정부가 영화 개봉을 금지했다가 1963년 해금했지만, 2010년까지 잊혀진 채 아카이브 창고에 묻혀 있었다.



그녀의 시간 Her Time / 11월 4일-9일

유현목 Yu, Hyun-m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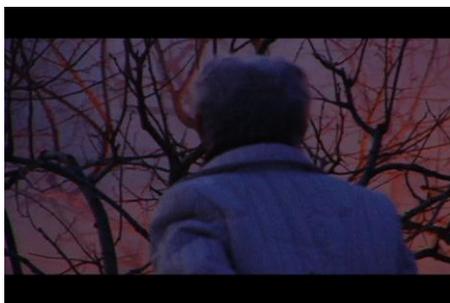
장마 Rainy Season

한국 | 1979 | 114분 | 컬러 | 35mm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동만이네 집에 외가 식구들이 피난 와서 함께 산다. 동만의 친삼촌은 빨치산이고, 외삼촌은 국군으로 공비 소탕에 나섰다가 전사한다. 이 일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는 살벌해진다. 읍내를 습격한 빨치산들이 모두 사살당하자, 동만의 아버지는 삼촌이 죽었을 거라 여긴다. 하지만 친할머니는 이를 믿으려 하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가, 아들이 생존해 있고 곧 귀가한다는 점괘를 받아온다. 월남한 실항민이며 반공영화를 여러 편 만들었던 유현목 감독의 후기 대표작으로, 윤흥길의 중편 소설을 영화로 옮겼다. 무장 게릴라 투쟁과 토벌, 상호 보복으로 인한 민간인 학살 등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얼룩진 분단의 기억, 야만의 시간을 샴니즘으로 위무하며 진정한 화해를 위해 고투하는 작품이다.

다큐멘터리 실험실 Documentary Lab / 11월 18일-23일

김숙현 Sook Hyun Kim



죽은 개를 찾아서 Searching for Dead Dogs

한국 | 2010 | 31분 | 컬러, 흑백 | HDV

할머니 집에선 개들이 죽어나간다. 왜일까? 나는 이 미스터리와 함께 할머니의 삶과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외할머니의 역사가 어떻게 나와 만나고 있는지, 나는 그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6. 프로그램

상영 및 강연

상영 및 강연 프로그램은 <미디어시티서울> 2014 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작품세계와 출품작에 대해 작가 자신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자리이다.

2014 년 9 월 2 일 (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SeMA) / 한국영상자료원 (KOFA)

10am	상영 <제로지겐 기록영상> <이나바의 흰토끼>		SeMA 사무동 1층 회의실
11am	작가와의 대화 제로지겐 / 카토 요시히로	일한 순차통역	SeMA 사무동 1층 회의실
1pm	작가와의 대화 타무라 유이치로	일한 순차통역	SeMA
2pm	작가와의 대화 제시 존스	영한 순차통역	SeMA
4pm	작가와의 대화 호신텁	영한 순차통역	KOFA 시네마테크 KOFA 3관
5:30pm	작가와의 대화 노재운		KOFA 시네마테크 KOFA 3관
7:30pm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안드레아의 하늘> 나타샤 니직	영한 순차통역	KOFA 시네마테크 KOFA 1관



컨퍼런스

괴력난신 怪力亂神 을 말하라

<미디어시티서울> 2014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컨퍼런스는 '귀신, 간첩, 할머니'의 주제를 심화 확장하기 위한 자리이다. <미디어시티서울> 2014의 도록2의 출간에 맞춰, 도록의 주요 필자와 참여작가와 함께 아시아의 문화, 식민경험과 냉전, 여성의 시간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한다.

공자는 '괴력난신'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폭력과 재난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괴력난신이야말로 주된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컨퍼런스에는 냉전의 새로운 인류학적 성찰을 해온 권헌익, 대만 여귀를 주인공으로 소설을 쓴 리앙, 조르게 간첩단 사건을 다루는 박노자, 작가 양혜규, 큐레이터 정도련,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로 유명한 최상일 MBC프로듀서 등이 참여한다. '괴력난신을 말하라'는 미디어시티서울과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여는 행사이다.

- ※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 ※ 협력: 경기문화재단
- ※ 기간: 2014년 10월 23일 (목) – 30일 (목)
- ※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계원예술대학
- ※ 발표자 및 패널: 양혜규, 정도련, 리앙, 권헌익, 박노자, 조해준, 최상일, 김지연 외 다수

*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www.mediacityseoul.kr



7. 관람 안내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귀신 간첩 할머니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한국영상자료원
기간 2014. 9. 2 (화) – 11. 23 (일)

관람안내

<u>서울시립미술관</u> <u>서소문본관</u>	관람시간	화 - 금 10:00-20:00 주말·공휴일 10:00-19:00 (9, 10월), 10:00-18:00 (11월)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뮤지엄 데이: 매월 2회 (첫째, 셋째 주 화요일) 22:00시까지 연장개관
	관람료	무료
	오디오가이드	국.영문, 무료이용, 한정수량, 신분증 제시
	도슨트 프로그램	전시기간 중 매일 11:00 / 14:00 / 16:00
	문의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100-813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미술관) 02.2124.8800 / sema@seoul.go.kr / sema.seoul.go.kr (비엔날레) 02.2124.8988 / press@mediacityseoul.kr / www.mediacityseoul.kr
<u>한국영상자료원 1F</u> <u>한국영화박물관</u>	관람시간	화 - 금 10:00-19:00 주말·공휴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추석 연휴 휴관 /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
	관람료	무료
<u>한국영상자료원 B1</u> <u>시네마테크 KOFA</u>	상영스케줄	<미디어시티서울> 2014 홈페이지와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 참조 (추후공개)
	관람료	무료 상영이나 발권필수. 현장발권 / 인터넷예매: 맥스무비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koreafilm.or.kr
	문의	한국영상자료원 121-90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02.3153.2001, 2072 / kofa@koreafilm.or.kr / www.koreafilm.or.kr 현장발권 문의: 티켓박스 02.3153.2075-7



8. 담당자 연락처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사무국	서울시립미술관
커뮤니케이션 팀장 심아빈 abs@mediacityseoul.kr 02.2124.8979	SeMA 비엔날레 담당 큐레이터 유민경 minkyungyoo@seoul.go.kr 02.2124.8973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 김혜진 jin@mediacityseoul.kr 02.2124.8988	서울시립미술관 홍보 큐레이터 변지혜 bsjihye@seoul.go.kr 02.2124.8928
자료 다운로드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 Internet Explore에서만 열람 가능) http://webdisk.eseoul.go.kr/ohd/pm/home/login.php Guest 로그인 → ID: bsjihye PW: sema2013 → [Mediacity Seoul 2014] 폴더	
웹사이트 www.mediacityseoul.kr	
SNS	
트위터	twitter.com/mediacityseoul
페이스북	www.facebook.com/mcs2014
인스타그램	instagram.com/mediacity_seoul